

“내가 더 예뻐”...미모 뽐내는 국립공원 봄꽃



무등산 복수초



가야산 매화



한려해상 춘당매



내장산 노루귀



내장산 변산바람꽃



다도해 서부 동백꽃



관매도 매화

# 花 ~ 봄꽃이 ‘톡’ ‘톡’...봄처녀 반기네

## 무등산 복수초 이번주 활짝

### 구례 지리산 산수유 내달 만개

### “개화시기 맞춰 국립공원 오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야생화 관찰시기, 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를 최근 공개했다. 봄꽃 절정 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야생화 등 식물을 꺾거나 채취해선 안 된다. 식물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 국립공원 내 자원이어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봄꽃 언제 피나=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첫 봄꽃 소식은 한

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에서 들려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매화로 알려진 춘당매가 지난달 4일 꽃망울을 터뜨린 것.

무등산과 내장산에서는 야생화인 복수초,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이 2월 중순 피기 시작했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도 노루귀 등 일부 야생화가 개화를 시작했다. 진도 관매도를 비롯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도 지난달부터 동백꽃 등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변산반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도 2월 말부터 복수초, 노루귀, 산자고, 송나물 등 야생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산수유마을로 유명한 구례군 산동면 일대를 시작으로 3월 초부터 노란빛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하기 시작했다. 4월 중순이면 전

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돼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뱃나무는 4월 중순부터 장관을 이룰 전망이다. 5월에는 소백산 국립공원 연화봉 일대 철쭉이 만개할 예정이다.

◇봄꽃 개화·절정 의미는=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소 내 표준 관측목을 기준으로 작은 가지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의 경우 한 개체에 3송이 이상이 피었을 때 개화라고 한다. 절정 시기 또한 표준 관측목을 기준으로 한 개체에서 80% 이상 꽃이 피었을 경우 절정 시기로 부른다.

국립공원에서 개화 시기는 기상청 발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국립공원의 해발고도가 높고 계곡의 영향으로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에서 뱃나무, 산수유나무 등 다화성 식물의 경우 한 개체에 3송이 이상 피었을 경우 개화로 판단하며, 한 개체에 하나의 꽃이 피는 단화성 식물과 초본류인 야생화의 경우 그 개체 중 가장 빨리 핀 시기를 개화로 본다.

절정의 판단도 뱃나무와 같은 다화성 식물의 경우는 기상청 기준과 같으며(한 개체의 80% 이상 개화), 단화성 식물과 초본류인 야생화의 경우 군락을 이루거나 해당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개체 중 80% 이상이 꽃을 피었을 경우 절정으로 본다.

공단 관계자는 “개화시기에 따라 국립공원을 방문한다면 봄 소식을 전하는 야생화와 함께 봄 기운을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국립공원별 봄꽃 관찰시기

공원	봄꽃	볼 수 있는 곳	개화	절정
다도해	동백나무	거문도 등대가는 길, 보길도	2월 중	3월 중
	길마가지나무, 봄구슬봉이	정도리구계동 방풍숲	3월 초	3월 중
	진달래, 현호색	홍도1구~2구 탐방로	3월 중	4월 중
월출산	얼레지	도갑사~역새발 탐방로	3월 중	3월 말
	동백나무	무위사 자연관찰로	3월 중	4월 중
지리산	얼레지	유평마을	3월 중	3월 말
	히어리, 생강나무	뱀사골 계곡	3월 말	4월 중
	산수유	지리산 마을 인근	3월 말	4월 중
무등산	복수초	약사사~용추계곡, 만연산지구 일원	2월 중	3월 중
	산자고	평두메 일원	3월 말	4월 말
변산반도	남산제비꽃	내변산 탐방로	3월 중	3월 말
	노루귀	내변산~실상사	3월 초	3월 중
내장산	노랑붓꽃	남창자연관찰로	3월 말	4월 초
	얼레지		3월 중	3월 말
	고불매		3월 중	3월 말
	평의바람꽃	백양탐방지원센터~백양사	3월 말	4월 초

## 국립공원 겨우살이 함부로 캐면 큰코 다쳐요

###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말까지 무등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

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 등 총 107건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올해에도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약초꾼 등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광주 서구 “죽은 나무 정리해 드립니다”

광주 서구는 ‘주민감동 찾아가는 수목관리 서비스’를 접수받는다 7일 밝혔다.

3월 중 수목 정비 신청을 받고 현장여건·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작업시기를 조정하고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 주택, 공동주택 등에 식재된 안전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사목 등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수목 병·해충 방제를 진단해 준다.

사유지에 식재된 수목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해위험 수목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토지소유자가 직접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69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현황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감동 찾아가는 수목관리 서비스사업은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위험 수목을 관리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아이들 스마트폰 대신 ‘자연 벗’ 만들어주기

### 자연나들이 17일까지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 북구 무등산 평촌마을 일원에서 올 상반기 자연나들이에 나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자연에서 배우고 놀고 싶어 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 6학년 학생 20명

이다. 오는 17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062-514-2470), 홈페이지(http://gj.ekfem.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자연 나들이는 3~8월까지 매월 한 차례 일요일과 주말 진행된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가 식사와 간식으로 제공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분양 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 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 www.emsolar.kr